

1998년 10월 9일 금요일

삼보 컴퓨터 美서 돌풍 2주동안 18만대 주문

500~600달러짜리 초저가... 1억달러어치 팔아

삼보컴퓨터가 초저가형 펜티엄 P C로 컴퓨터의 본고장인 미국시장을 공략해 2주 만에 18만대(약 1억달러)의 주문을 받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.

삼보컴퓨터 이홍순(李洪淳)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"미국내 유통업체인 어머신스를 통해 주문 받은 결과 이미 18만대가 신청됐으며 지금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"고 말했다. 또 일본에서도 유통업체인 티존과 소택을 통해 3만대의 주문을 확보했으며, 유럽·남미·중국 등에서도 월 3만대의 수출계약을 맺었다.

정보통신부 천창필(千昌弼)정책과장은 "지난해 한국의 PC(노트북 포함) 수출이 3억3천만달러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 성과"라면서 "한국의 컴퓨터 수출과

관련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삼보 제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성능에 비해 '엄청나게' 값이 싸기 때문이다.

가격은 본체에 14인치 모니터를 포함해 4백99달러와 5백99달러(약 70만~80만원대)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값에도 32MB 램·그래픽 카드·3.2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·24~32배속 CD롬·사운드카드·56Kbps 모뎀·윈도98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삼보측의 설명이다. 중앙처리장치(CPU)도 2백66MHz 사이릭스칩(4백99달러 제품)과 3백MHz 인텔칩(5백99달러 제품)을 각각 채용해 인터넷과 3차원 입체그래픽 게임을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. 최근 미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형 PC가 쏟아져

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8백달러대에 이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.

추사장은 "지금도 전세계 대형달러에서 10만~20만대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"고 말했다.

삼보가 이처럼 저가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, PC가격을 낮추기 위해 물건을 만든 뒤 PC값을 정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목표가격과 월 생산대수를 먼저 정해 부품업체에 물량을 안정되게 확보시켜 주는 대신 부품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(X프로젝트)을 동원했기 때문이다.

한편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대리점 이윤과 사후서비스 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값이 너무 싸 당분간 국내 출시계획이 없다는 게 삼보측의 설명이다. ☎ 원낙연 기자

<yanni@joongang.co.kr>

투자자문사 설립 쉬워진다

내년부터 최저자본금 절반이하로 낮춰

투신운용·선물거래업도

내년부터는 투자자문·투자신탁·운용·선물거래업 등 각종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. 진입장벽을 낮춰 이들 기관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해 퇴출도 자유롭게

하겠다는 취지다.

다만 논란을 빚어 온 은행·보험·증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낮출 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2000년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.

정부는 16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대폭 낮

추는 방안을 확정하고, 관련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.

규제개혁위측은 금융업 관련 규제개혁차원에서 각종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의 최소자본금을 ▶투자자문업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▶투자신탁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▶선물거래업은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 ▶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▶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. 신예리 기자

<shiny@joongang.co.kr>

수준 높은 정보기술산업 한자리에

12문 163쪽 12문 163쪽